

## 한국에서 ‘졸혼(卒婚)’을 원하는 여성들

이 승 숙

한국 가톨릭 상담심리교육원

정 문 주<sup>†</sup>

한양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주 호소 문제가 ‘졸혼(卒婚)’으로 상담센터를 내방한 중년여성에 대하여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연구목적에 동의한 4명의 주 참여자들과 2명의 보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 참여자 4명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된 의미단위 26개를 기초로 하여 8개의 구성요소와 핵심의미 2개를 추출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심리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자유’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지 ‘스스로 쟁취하는 자유’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졸혼(卒婚)’을 선택하고자 하는 가장 이유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어서’, ‘이혼하면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가 불쌍해서’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졸혼(卒婚)’이란 실제 본인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졸혼(卒婚)’을 원하는 중년 여성의 생각과 심리적 본질을 분석하여 사회에서 현재 ‘졸혼(卒婚)’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탐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졸혼(卒婚)’을 원하는 중년여성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에게 ‘졸혼(卒婚)’을 선택하고 언급하는 여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상담 개입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중년여성, 졸혼(卒婚), 질적 연구

<sup>†</sup> 교신저자 : 정문주,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왕십리로 222

Email : sasayayoo@naver.com

2017년 7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결혼 건수는 28만 1600건으로 전년에 비해 7.0% 급감했다. 매년 결혼 건수는 통계청이 결혼률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1974년(25만 9,100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율은 5.5건으로 전년(5.9건)에 비해 0.4건 감소했으며,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46년 만에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율 감소의 이유에는 절대수가 감소하는 '인구 구조적 요인'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시기적 요인',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가족관계와 결혼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에서(송민영, 2016; 이재경, 김보화, 2015) 혼인율 감소의 가장 주요인을 20대와 30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 등이 결혼제도와 가족제도의 의미를 바꾸고 있으며 임신과 양육을 포기하게 한다고 보았다(박정수, 정유경, 2017).

송민영(2016) 역시 2010년대 들어오면서 국내외적으로 장기간의 경제 불황은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인 중년들에게까지 과거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동거', '혼외가족', '비혼', '사실혼' 등이 암묵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공영방송에 '혼외가족'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제도가 법률상 불이익 존재한다. '사실혼'을 증명할 만한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처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며, 사실혼을 인정받더라도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2003)에 의하면 부부간 '이혼'을 한 경우에도 여전히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는 '실패자'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아비 없는 자식', '엄마 없는 애'라는 부정적 낙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혼'을 원하는 기혼자들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름뿐인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동아시아권에서는 이혼하게 되었을 경우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된다(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 또한 일차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혼을 원했던 중년여성들이 2000년 대 후반 일본에서 공론화 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졸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병수, 2017).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증명하듯 '유명 배우'의 '졸혼' 공개 이후 '부부 상담'을 하는 상담센터에서 중년 여성들의 주호소로 '졸혼(卒婚)'이라는 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송미경, 2016).

하지만 '졸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단기간에 증가했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졸혼'에 대한 연구 자체가 김병수(2017)의 고찰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강유진, 2017; 성미애, 최연실, 최새은, 이재림, 2017).

단지 결혼과 관련된 의식조사에 있어서 일부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여 '졸혼' 현상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임상장면에서 보고되는 바로는 '졸혼'을 원하는 이들은 주로 중년여성이라고 하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졸혼'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회자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부상담'을 신청하면서 주 호소가 '졸혼'인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졸혼(卒婚)'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졸혼(卒婚)'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졸혼(卒婚)'이 가능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들이 '졸혼'을 원하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적 개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상담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졸혼'이라는 경험적인 자료를 학문적 이론과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국내의 결혼제도와 부부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중년 여성에게 졸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인 '졸혼(卒婚)'이라는 개념은 양적으로 측정되는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요인을 계량화시키고 정해진 가설과 그 결과의 일반화에 관심을 두고 측정하는 양적 분석 방법으로는 중년여성들의 '졸혼(卒婚)'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하여 의미와 해석을 이끌어내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의미와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인간 경험과 지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추구

하는 현상학적 연구 (van Mannen,1997)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즉, 졸혼을 원하는 중년의 여성들의 사고와 심리의 본질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사회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van Mannen(1990)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 혼인제도

1950년 해방 이후 법적인 혼인 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2017년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결혼 이민과 이주에 관련된 연구까지 대한민국의 결혼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김혜순, 2008;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2007년 초 혼인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결혼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혼인 적령기가 존재했다. 그러나 조은희(2009)에 의하면 이러한 혼인 적령기라는 용어가 헌법상 양성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에 의해서 2007년 말 남녀 모두 만 18세로 개정되는 등 혼인과 관련한 제도는 변화하였다. 또한 2005년 3월 6개월의 재혼금지 기간과 관련한 법률 전문 역시 삭제되었다(이영재, 2008). 위와 같이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르게 혼인의 범주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1999년 8월 허례허식의 금지 등 사회 제도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불황의 연속으로 최근에는 가족과 초대 받은 몇몇의 지인들만 참석하며, 화려함보다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small wedding'이 이루어지고 있다(배주희, 2015). 그리고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1990년 말에 사회 이슈로 등장했던 '황혼이혼'이 2015년에는 전체 이혼 중, 약 3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김소진,2009).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혼 후 재혼을 하는 부부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로 인한 갈등, 재산관련 자식들의 반대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박훈, 윤현경, 2017). 결국 결혼이란 사회적 환경, 경제적 측면, 개인들의 가치관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혼인제도가 미래에도 적합한 혼인제도일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존재해 왔다. Hall(1993)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에 맞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제도를 찾는 데 노력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경우는 탈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적 제안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제도가 적합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만 하다면 새로운 제도는 정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에 있어서 ‘졸혼’이란 제도가 어떻게 국내에서 정착할지 혹은 유행으로 마무리 될지는 ‘졸혼’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얼마큼 함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선정의 가장 큰 원리는 ‘나의 연구 문제에 가장 심도 깊은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이다. 이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Merriam, 2009)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erriam(2009)과 Patton(2002)이 주장한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참여자 선정을 마무리 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표집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졸혼(卒婚)’을 계획하거나 원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 거주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센터의 오프라인 공개게시판에 실무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공개 표집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2단계에서 연구자 주변의 각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족상담, 개인상담, 부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연구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 추천을 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각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추천을 받아 주변에 ‘졸혼(卒婚)’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을 고민하거나 ‘졸혼(卒婚)’을 원하면서 상담 주제가 ‘졸혼(卒婚)’이라고 공공연히 표명한 사람들을 소개 받고 연락을 취했다. 또한 연구 진행 중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들을 소개받은 이후 참여자 선정을 마무리 하였다. 연구의 주 참여자 정보는 4인으로서 연령대는 50~60대였으며, 3인의 경우는 초혼이며 1인이 재혼 이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3인은 강남 이였으며 강북에 거주하고 있는 1인은 배우자의 직업으로 인하여 거주지역이 두 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주지만을 기록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주 연구 참여자와 보조 연구 참여자로서 참여자 자녀의 기본 정보이다.

###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N=6)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자녀	혼인여부	거주지역	배우자 직업	연봉
1	여	50'	2남	초혼	신촌	임대업	-
2	여	50'	2남	초혼	강남	00자동차 회사 영업	6~7천
3	여	60'	1남1여	재혼	강남	경찰 공무원	5천
4	여	60'	1남1여	초혼	반포	전자 회사 이사	1억5천
참여자 자녀	성별	연령	자녀	혼인여부	거주지역	본인직업	
5	여	30'	1녀	초혼	강남	은행원	
6	여	20'		미혼	강남	학생	

지 진행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 한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시작 전에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 인터뷰 질문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인터뷰 횟수 및 예상 소요시간을 알리고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주제와 그 목적에 대한 설명, 비밀 보장, 멤버 체크(Member Check)를 통하여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한 기록 삭제 요구 및 인터뷰 중단 요청, 자료의 확인 요청 등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면접 종결은 각 연구 참여자에 따라 4~5회기 내의 면접을 통해 총 18사례가 수집되었을 때 자료의 포화상태를 맞이하였고, 이 후 면접을 종료하였다. 그 결과 주 연구 참여자는 4명이며 2명은 자료의 다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보충 자료적 면담을 위한 참여자로서, 이후 본 연구의 참여자는 주 참여자 4명만을 대상으로 표기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과정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Merriam(2009) 반복 비교법을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자의 진술 자료인 녹취된 음성 파일과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듣고 읽어가면서, 기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전사(transcription)된 자료를 수차례 읽고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졸혼(卒婚)'을 원하는 중년의 여성들이 졸혼(卒婚)을 인지하게 된 계기, 정보 획득의 방법, 그리고 연구 참여자인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졸혼(卒婚)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부분에 대하여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의 코딩에 의해서 범주화된 주제에 의해 하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심의미인 8개의 구성요소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나타내도록 일반화된 어휘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선 도출된 구성요소별로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을 사례별 비교를 통하여 상황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 4명의 공통된 경험을 아우르는 추상화된 수준에서의 본질적인 주제 2개를 도출하여 '졸혼(卒婚)'을 원하는 중년여성의 의식과 생각에 대한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 분석 감수 팀

분석 감수 팀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3명의 합의 팀과 2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 팀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3명이며, 질적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연구자이자 현장 가족 상담 경험이 20년의 상담 겸임 교수 1인, 가족학을 전공하였으며 법원에서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족학 박사 1인, 질적 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현재 질적 연구방법론을 강의하고 있는 교육학 박사 1인으로 이루어졌다. 감수자는 (사)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소속의 1급 전문가이며 현장에서 가족, 부부상담자로 근무하는 1인과 (사) 한국 상담심리학회, 소속의 1급 전문가이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학 박사 1인으로 구성되었다.

###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 연구 대상자들의 체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묘사하기 위하여 개방식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의 내용은 Elo와 Kyngäs(2008)가 제시한 좋은 연구 질문을 참조하여 '졸혼(卒婚)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졸혼(卒婚)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졸혼(卒婚)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졸혼(卒婚)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등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면접시간은 약 28.67시간으로 총 1,720분이었으며 1인 당 4회~5회 기준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사 분량의 경우 1인당 1회 기준 8~15쪽이었고 가장 많은 1인은 15쪽이었다. 전체 전사분량은 320쪽이었다.

### 연구 윤리

본 연구는 무엇보다 연구윤리 특히 비밀보장과 관련되어 민감하게 진행 되었다. 본 연구는 상담센터에 찾아온 내담자들 중 '결혼생

표 2. 면담 질문 목록

연구문제	세부질문
졸혼(卒婚)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졸혼(卒婚)을 어디서 들었는가? 졸혼(卒婚)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 인가?
'졸혼(卒婚)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졸혼(卒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졸혼(卒婚)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졸혼(卒婚)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졸혼(卒婚)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졸혼(卒婚)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졸혼(卒婚)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졸혼(卒婚)을 원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 졸혼(卒婚)을 한 당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활'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이 중요하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중요한 '진실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심도 깊은 자료의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여자 이름은 모두 참여자 1, 참여자 2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현재 연구 참여자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경우를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할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내용, 녹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먼저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재확인을 한 후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함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또한 'Member-check'을 통해 참여자가 삭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이며,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맞는지 다시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연구 윤리의 정직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 결 과

본 연구는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졸혼(卒婚)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중년여성 4인의 참여자 체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리학적 용어로 변환된 의미단위들이 공통된 요소로 묶이며 26개의 의미단위로 요약되었고, 유목화 된 의미단위는 다시 핵심 의미로서 경제력(돈) 자유와 성(性)적 자유, 생활 의존, 경제적 의존,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 낙인과 긍정적 선망, 결혼유지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자신, 변화하고 싶은 마음 8개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공통 추출된 핵심어는 현상과 동기 등 2개의 핵심어로 정리되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핵심어인 '결혼유지'의 경우는 졸혼(卒婚)을 이야기 하면서 드러난 것이 아닌 숨어있는 의미였다. 표 3은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미 추출을 한 구체적인 의미단위, 구성요인과 핵심어를 정리한 것이다.

### 현상

상담센터를 내방하여 주호소가 '졸혼'이었던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은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남편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책임감 역시 표현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러난 현상에는 '의존'과 '회피'가 존재하였다. 이를 다음의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남편에 대한 부정정서

연구 참여자1: 얼마나 남편이 싫으냐면 요, 남편이 썼던 수건에 제 손을 닦는 것도 싫어요. 남편 냄새조차 싫어요. 그 인간이 숨을 쉬는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싫어요.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싫어요.

처음 연구 참여자는 졸혼을 원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남편과 살기 싫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살기 싫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표 3. 핵심구조와 의미단위의 요인 정리

의미단위	구성요인	핵심어
“같이 살기 싫다.” “가능한 떨어져서” “냄새도 싫다” “말도 안 한다”	남편에 대한 부정정서	
“밥은 해줘요” “빨래는 해줘요”	책임감	
“일 해본 적 없어요” “나가서 돈 벌줄 몰라요” “돈만 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말한 일이 없더라고요”	경제적 의존	현상
“뭐 같아도 남편이 있는 거랑 없는 것은 달라요” “그래도 힘들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 애는 내가 있어야 해서”	심리적 의존	
“애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 해서” “아이가 싫어해서”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밥도 내 맘대로 먹고 싶다” “남편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일상의 자유	
“(남편) 눈치 안보고” “돈만 있으면 나가 살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	동기
“뭔가 바꿀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상담을 받는 이유” “행복하게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	결혼생활유지	

연구 참여자3: 처음에는 같이 자기 싫어지  
더라고요. 내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싫고  
그러고 있다 보니 말 섞기도 싫어지고

같은 방에 있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  
기도 싫어지니까. 출혼을 원하는 이유는  
정말 남편과는 같이 살기 싫어서예요.

위의 연구 참여자3의 표현처럼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남편과 한 공간에서 지내기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정서적 표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참여자들은 본인의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남편에 대한 책임감

연구 참여자1: 그래도 밥은 해줘요. 삼시세끼 꼬박 먹을 때도 있지만 챙겨줘요. 그리고 빨래도 하죠. 당연히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 책임감 내 할 일은 해야죠.

위의 연구 참여자1의 표현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책임감으로 혹은 집안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자신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다음의 연구 참여자4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4: 남편이 미운거랑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죠. 저는 남편 속옷도 다려서 보내요. 미운 거는 미운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면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보란 듯이 해놔요.

위의 연구 참여자 4의 표현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서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보이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혹은 심리적 의존과 연결

지어 드러났다. 다음의 자료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이다.

### 경제적 의존

연구 참여자 2의 경우는 처음부터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졸혼(卒婚)'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을 남편이 해결해 주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2: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이 남자가 사실 저를 먹여살려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잘 안주고 짜게 굴고 뭐지 자식한테도 돈을 안주는데…….

연구자: 그럼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되나요?

연구 참여자 2: (연구자 이야기에 웃으며) 생각은 해봤죠. 그런데 제가 할 말한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일을 할 못해요.

위의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구 참여자 2는 경제적인 자유를 원했지만 스스로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졸혼(卒婚)'을 하게 되면 이들은 '자유'와 '경제적 독립'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서 연구 참여자 3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이야기 하였다.

연구 참여자 3: 연금 보험부터 적금보험까

지 내 이름으로만 들고 있어요. (웃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요. 언젠가 저 혼자 살려면, 이렇게 같이 살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모아 놓아야 제가 나가서 돈을 벌면 여러 명의 기분을 맞춰야 하지만 집안에 있으며 신랑 기분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 들면 다 각자 사는 거죠. 얼마나 뭐 애뜻하다고 우리 주변에도 대부분은 각방 쓰고 나이 들어서 여자는 서울에 있고 남자는 시골 가 있고 그렇게 살다가 추석이나 명절 같은데 모이잖아요. 그게 줄혼과 다른 게 뭐예요. 말만 안할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은 사실 집에 돈이 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하겠어요.

연구 참여자 3은 '줄혼(卒婚)'은 이미 한국 사회에 존재해왔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줄혼'과 같은 한집의 두 가족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 모두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의 논의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경제력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언급한 대로 혼인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2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2: 사실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혼을 하면 지금처럼 못살게 너무 뻘해요. 눈에 보이지. 지금처럼 살지 못하면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남편과는 살기 싫고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이런 게 싫어서 상담을 받으러 온 것도 있어요. 그렇게 남편하고 살기 싫은데 그 돈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못하겠고.

위의 연구 참여자는 이혼보다는 차라리 '줄혼'을 하면서 현재의 경제적 지위를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즉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이 아닌 현실적으로 '줄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위의 자료는 김병수(2017)가 보고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혼자들은 부부 별산이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각자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혼(卒婚)'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줄혼을 원하는 여성은 스스로 배우자와의 분리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의존과 더불어 '든든한 배우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보고자 한다.

### 심리적 의존

연구를 진행하면서 '줄혼'을 원하는 중년여성에게는 특징적으로 양가적이면서 역설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었다. 즉 자유를

원하지만 의존적이었으며 분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심리적 의존의 대상이 남편과 나아가 자녀에게로 이동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2: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이혼해서 왔어요. 그런데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신랑이 데리러 온 거야.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없는 거 보단 있는 게 낫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연구자: 졸혼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만남에는 못 오실 텐데요.

연구 참여자2: 그래도 아예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끈은 연결되어 있으니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아닌 거니까.

위의 표현에서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졸혼'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분리와 자유를 이야기 하면서도 배우자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즉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나아요.', '이혼이면 남남이지만 졸혼은 친구처럼도 지내는 거니까', '남편이 없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라는 공통된 표현을 하였다. 즉,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아예 없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 양가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양가적이고 역설적인 부분은 본 연구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였다. 분리되고 싶은 마음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 또한 졸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상담에 임한다고 했지만 상담을 진행하면 할

수록 이들은 현실적으로 졸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연구자에게 보고 하였다. 또한 이혼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이혼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로 '자녀 때문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송미강(2016)의 연구에서 드러난 이혼 가정 아이들의 따돌림 증후군에서도 나타난 내용으로서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와 연결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아름, 최셋별(2014)의 연구에 있어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으며, 새로운 가족형태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이혼은 부모의 문제이며 자신의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음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이다.

### 자기 합리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두 공통적으로 '남편과는 살기 싫다. 그러나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줄 것 같지 않으니 졸혼을 원한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신에게 오는 것은 괜찮지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3: 애 때문에 이혼은 안 돼요. 애가 힘들어져요. 주변에 보니까 아직도 인식은 안 좋더라고요. 애가 시집갈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해요. 난 아이한테 책임은 지고 싶어요. 내가 낳았

으니 책임져야죠. 그래도 결혼할 때 한 쪽 부모 없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의 연구 참여자3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애 때문에”, “아이가 싫어해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 3, 4의 자녀(참여자 5, 6)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5: 저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상담을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 엄마가 차라리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살면 좋은데 저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전부터 들어서요. 사실 저는 엄마 때문에 아빠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엄마가 아빠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저의 청소년기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빠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저는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대에 아빠를 미워한 난 뭐지? 난 왜 그렇게 아빠를 미워했던 거지? 지금도 전 이야기해요.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괜히 다 큰 딸 핑계대지 말라고.

위의 연구 참여자 5는 면접을 요청했을 당시 참여자 3과 같은 상담센터에서 각기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즉 참여자 3이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핑계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6도 다음

과 같은 표현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6: 저는 저의 어머니가 결혼을 원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그럴 거면 뭇 하러 같이 사나. 이혼해라. 그런데 제가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날 화를 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청소년이여서 상처 받을까봐 못 한 거고 지금은 시집갈 때 시댁에 잘못보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끈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싶기도 하고, 저 같으면 그냥 이혼하거든요.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엄마는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애기해요. 엄마도 좀 독립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위의 연구 참여자 6의 경우도 연구 참여자5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자신들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거나 이혼을 못한다는 표현을 극도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김기화, 양성은(201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의 ‘자식 때문에 이혼 못 한다’라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자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

신의 어머니에게 독립을 바라기도 하고, 자신(자녀)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4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연구 참여자4: 난 이게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혼을 하지 못할까를 생각해볼 때마다 그것에 대한 답이 항상 '애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상담을 다니면서 생각해 봤죠. 이렇게 살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라는 건 사실 저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항상 배운 게 "말하지 마라"였으니까. 그런데 사실 난 남편에 대한 끈을 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가능한 한 남편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혼을 못할까? 그걸 시작으로 딸에게 계속 이야기 하다 보니 딸이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 다면서 저보고 상담 센터에 가라고 한 건데..... 지금도 여기서 이려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위의 연구 참여자4의 '자녀에 대한 책임'은 사실 그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녀를 핑계 삼아'라는 표현으로서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씩은 모두 내비쳤던 부분이었다. 또한 자녀들은 자신들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자녀들은 참여자들 스스로 독립적이게 사는 모습을 바라는 것을 참여자들은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 동기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졸혼(卒婚)을 함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자유'였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자유였다. 이를 다음의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일상의 자유

연구 참여자1: 남편은 제게 연애세포가 없다고 얘기해요. 연애를 하지 못할 거라고.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 하죠. 저하고의 섹스는 무미건조하다고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보이니까. 그 여자하고는 그렇게 안 했겠죠. 자유롭게 했겠죠. 그래서 여자를 사는 거라고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전 연애고 뭐고 지금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면 그러고 싶으니까요.

위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1인 부부 상담을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남편이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에게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즉 '남편의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자녀의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혼자 자유롭게 있고 싶은,' 심지어 '밥도 마음대로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하는 일상의 자유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다음의 자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 '자유'를 계속 이야기 하셨는데 그 '자유'는 무슨 의미인가요?

연구 참여자 3: 아~ 자유?,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심지어 내 새끼조차 없었으면 좋겠지.**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거, 하지만 이혼은 별로예요. 그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롭고 싶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역할도 없고, 그냥 나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사는 거죠

위의 자료에서 보고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였다.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기보다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바라는 것' 이상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곧 '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다음에서 이를 좀더 상세히 보고자 한다.

###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란 다른 의미로 '돈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다'의 다른 표현이었다. '졸혼'이 일본에 처음 등장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중년기 이후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결혼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에서도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졸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1: 남편이 돈을 쥐야 해요. 돈만 있으면 난 이것저것 다하고 살 수 있어요.

연구자: 이것저것이 무엇인가요?

연구 참여자 1: 뭐 하고 싶은 거 다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연구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연구 참여자 1: 공부도 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 거죠.

연구자: 그걸 꼭 졸혼(卒婚)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연구 참여자 1: 음 그렇죠. 눈치 안보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하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하하. 그런 거 있어요. 돈을 써도 눈치가 보여. 애 아빠가 있으면,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할까봐.

위의 자료에서처럼, '돈만 있으면'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모든 참여자에게서 보고되었다. '돈만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본인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력으로 자신의 자유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연구 참여자 2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2: 졸혼(卒婚)을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2년만 지나면 연금을 타거든요. 그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지. 이혼은 안 할 거니까. 졸혼(卒婚)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도 연금을 타니까, 그 일부를 나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걸 미리 알면 그 연금을 다 타서 안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럼 얻을 게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위의 자료에서처럼 '경제적 자유'는 곧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금이 필요하다는 것과 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혼이 아닌 '졸혼'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졸혼'이라는 제도가 정착되었던 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김안호, 채종훈(2006)은 한국과 일본의 고령인구의 소득정책에 관한 논문에서 일본의 연금제도에 포함된 배우자 할당량은 일본의 황혼이혼을 줄이는 정책의 보완점이 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즉 일본의 노년층에게 있어서 연금제도의 지원은 '황혼이혼'보다는 '졸혼'을 선택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중년 여성들이 이혼이 아닌 졸혼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배우자의 연금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있었다. 즉 경제적인 자유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졸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배우자 할당량과 국내의 연금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은 다르다. 또한 연금의 공유와 배우자 할당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김병수(2017)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의 부부들이 졸혼(卒婚)을 원하지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현 시점에서 졸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삶의 질을 더 이상은 동등한 위치로 유지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의 1절에서 표현된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서의 '의존'과 연결선 상에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바는 이혼이나 졸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의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 결혼 유지

졸혼을 원했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며, 이혼은 하기 싫고, 또한 별거도 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같이 계속 사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들의 내면은 '잠시 쉬어가는 순간'을 가지고 싶어 했다. 잠시 쉬는 순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상대가 혹은 지금 나의 상황)이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살수는 없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다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2: 저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아요. 단지 남편과 살기 싫을 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졸혼을 이야기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졸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나이 들어서 뭘 얼마나 애뜻하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살긴 해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그런데 돈은 받고 싶으니까. 그래요 솔직히 이 남자가 나에게 돈을 줄까? 그러면 안 줄 거 같거든요. 그러니 그냥 살아야 하는데 정말 같이 있기 싫어요.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러면 결혼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도 한편으론 왜 이렇게 까지 되었나. 도대체 뭔가 문제였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자괴심도 느끼고 그러면서 바꿀 수 있을까? 바뀌고 싶다. 그런 거죠. 이왕 살 것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연구 참여자 2는 정확하게 자신이 상담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이 이혼할 용기가 없으며, 더 나아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소망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연구 참여자4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4: 우리가 연애를 해서 뭐 그렇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나잇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이 사람하고 잤으니까 아 결혼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 저는 집에서 나오고 싶었거든요. 친정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동생들도 있었고 내가 계속 일을 해서 집에 생활비를 대야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시집 간다고 도망 온 거지. 이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일단 그렇게 왔으니 돌아갈 곳이 없었지. 그래서 그냥 살았어.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집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남편 기분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것도 남편이 바쁜 사람이어서 집에 잘 안 오고 애 키우고 하다 보니 어느새 내 나이가 50이 넘은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이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문득 조만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계속 같이 붙어있을 건데 너무 괴로운 거야. 같이 한 공간에서 숨을 쉬어본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친구가 결혼이라는게 있다더라를 얘기해주었는데 그게 딱 내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구나.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의 연구 참여자 4가 표현 한 것처럼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그저 단지 잠시의 여유를 가지고 싶다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연구 참여자 3역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3: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 안 해도 되고 일단 집이건 남편이건 애들한테서 건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원했던 거죠. 사실 이혼은 안할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 생각해서 안한 거였는데, 상담을 하면서 어제 알았어요. 그건 핑계다.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안 한 거다. 애들은 솔직히 이혼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 거면 이혼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너희들 때문에 못해 라고 얘기 했거든요. 근데 큰 애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건 엄마 핑계라고. 엄마는 항상 핑계만 댄다고. 그저 저는 여유가 가지고 싶었어

요. 현실적인 여유 쉬는 공간 마음의 휴식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지 좀 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저에게 졸혼 이구요.

위의 자료에서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결혼은 하나의 도피처 역할을 했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의 퇴직과 더불어 자녀가 독립하면서 중년여성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방식을 요구 받게 되었다. 남편과의 공유시간이 길어졌으며 자녀의 결혼과 더불어 자녀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익숙한 습관으로 살아왔던 30년 이상의 시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의 연결고리는 유지한 채로 생활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 선택은 졸혼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간의 주고받음'에 대하여 자신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김완섭(1995)이 표현했던 부부간의 계약과 그 맥락적 의미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남편이 퇴직하면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가족의 틀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과정 속에서 중년여성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것이다. 그때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졸혼'이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센터에 처음 와서 책임지지 않는 자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의 희생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졸혼'을 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였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졸혼'을 원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희생과 책임 회피였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는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졸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해석 및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상담 센터에 내방한 중년여성에게 있어 호소 문제로 등장한 '졸혼(卒婚)'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생각과 심리를 탐색 하고, 졸혼(卒婚)의 의미가 현상학적으로 어떻게 중년의 여성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도출해 내기 위한 면담을 통한 자료 분석, 그리고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든 참여자들이 '졸혼(卒婚)'을 알게 된 계기는 방송매체였다. 특히 공통적으로 '백일섭'이라는 배우의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이들에게 '졸혼(卒婚)'은 곧 '백일섭'처럼 사는 것, 즉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방송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졸혼(卒婚)'을 한 사람들의 경우 '멋진 사람', '앞서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졸혼(卒婚)'을 하나의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杉山由美子(2017)의 글에서 제시한 졸혼(卒婚)과는 다른 의미로 국내에서 수용된 것으로 의미할 수 있다. 杉山由美子(2017)는 졸혼(卒婚)을 하는 이

유로 일본에서는 중년 이상의 부부가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제2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졸혼(卒婚)은 杉山由美子(2017)의 위에서 언급한 방법적인 제안과는 다르게 대중문화 속에서 유행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었으며, 실제적으로 졸혼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김병수(2017)가 국내의 중년부부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졸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의 중년 여성 참여자들이 졸혼(卒婚)을 원하는 데는 '자유'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졸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이야기 하는 '자유'의 본질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자유를 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혹은 가족의 희생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국내의 시도/직업별 혼인비율 2008년부터 2016년 통계치<sup>1)</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남성 무직자의 결혼비중(3.7%)에 비해 여성 무직자의 결혼 비중(32.8%)이 10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남녀 모두 무직자의 결혼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남성 무직자의 결혼비중이 과거 2008년 6.8%이었던 것에 비해 여성 무직자의 결혼비중은 47.3%로, 결혼한 여성의 절반이 무직자였다. 즉 2008년 통계치에 의하면 남성은 100명중 7명이 무직자 결혼 상태라면 여성은 100명중 50명이 무직결혼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2016년에는 남성이 경우 3.7%로 약 100명중 4명이 무직자상태로 결혼했다면 여성은 100명중 32.8%로 33명이 무직상태로 결혼을 한 것이다. 즉, 통계치에 따르면 남성 배우자의 경제력이 여성배우자의 경제력 보다 결혼 비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중년의 여성들이 졸혼을 원하는 동기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상태는 유지하고 싶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책임감을 회피하며 이를 남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결혼을 시작할 때와 졸혼을 원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있어서 일부의 여성들이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바를 보여주는 현상(아사회,2014; 정의술,2014)으로서 상담현장에서 졸혼을 원하는 여성들의 의도와 욕구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졸혼을 원하는 여성들은 '졸혼'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시작점'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권오재(2017)가 제시한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에 대한 결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결혼을 시작한 이유와 그 동기가 이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2의 경우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2&vw\\_cd=MT\\_TM2\\_TITLE&List\\_id=101\\_B19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2\\_TITLE&path=%252FcustomStatis%252FcustomStatis\\_02List.jsp//KOSIS국가통계포털 이슈별집권](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2&vw_cd=MT_TM2_TITLE&List_id=101_B19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2_TITLE&path=%252FcustomStatis%252FcustomStatis_02List.jsp//KOSIS국가통계포털 이슈별집권)

데, 그녀는 스스로 직업을 가지거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경제력'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도 존재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단지 남편의 허락,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독립을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며 상담자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으로 표현하였다. 즉 졸혼(卒婚)을 하고 싶다고 상담센터를 찾는 내담자들의 일부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거나 상담자에게 미루기 위해서 상담센터에 오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는 신성자(2008)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배우자가 이혼을 위해 상담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결국 졸혼(卒婚)이 이혼의 전 단계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존적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의존은 암묵적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음'이 부부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즉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암묵적으로 '돈을 벌어드는 사람'과 '집안일 하는 사람'이 구분된 것이다. 즉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드는 사람'은 집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만약 '돈을 벌어드는 사람'이 집안일도 하게 된다면 '집안일 하는 사람'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밖에서 돈을 벌어드는 사람이 가능한 한 집안일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유급노동-가사노동 간 경제적 교환(exchange)의 논리가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자원 거래이론(resource bargaining model)과 경제적 의존이론(economic dependency model)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가정에서도 설명가능하다(Horney, M., McElroy, M., 1988). 즉, Becker(1981)의 교환이론이 한 가구의 효용극대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가사노동을 분석한다면, 자원거래이론은 남편과 아내의 자원의 차이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가사노동분업은 더 중요한 자원(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타협을 이끌어낸 결과인 것이다. 남편과 아내 둘다 가사노동을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Ferree(1991)에 의하면 자원이 많은 배우자가 유리하게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원거래이론에 의거한 경제적 의존이론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배우자는 생계부양자의 소득을 공유하는 대가로 가사노동을 수행한다(Delphy and Leonard, 1986). 이 이론에 의하면, 여성이 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용인"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Walby, 1986; 김완섭, 1995). 남성배우자는 암묵적인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과 화폐를 배분하는 고용주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여성은 암묵적인 "가사노동계약"하에 부양을 대가로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혜경(2008)과 엄명용, 김효순(2011)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동양권에서는 유급노동참여를 통해 여성이 독자적인 소득원을 갖게 되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여성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교환의 법칙은 가사노동 배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기는 장기화 되고 청장년층에

서 이루어졌던 부부관계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재정립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동양에서 이혼이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며 자녀가 연결되어 있다. 부부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혼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서 보고되는 바와 같이 ‘이혼 가정’ ‘이혼 자녀’라는 용어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조성구, 2017; 조은희, 2009). 따라서 여전히 부부에게 있어서 ‘이혼’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나 가능한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최양숙, 20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녀를 면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는 상이하였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가 자신으로 인하여 이혼을 망설이거나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한명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더불어 경제적인 독립과 심리적 독립을 하고 자녀의 독립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의 의존적 대상이 결국에 남편에서 자녀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원하는 마음인 ‘자유’는 사실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의 ‘반향’이었음을 드러냈다. 어떤 의미로든, 자녀에게 부정적 인식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건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건 결혼을 원했지만 실상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참여자들 중 일부는 결혼이 불가능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첫 번째 결혼을 시작했을 때 독립적이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배우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자유를 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 이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 후 집에서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제2의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며, 또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이 아닌 새롭게 형성되는 결혼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결혼이라는 형태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을 원하는 중년의 여성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그녀들이 원하는 삶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법과 이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결혼(卒婚)’이란 ‘이혼’의 징검다리인지, 아니면 건전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인지, 어느 선상에 놓을지 개념화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결혼(卒婚)을 원하는 상담실에 방문한 기혼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혼을 원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고 있는 기혼자들과 남성들의 이야기가 제외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는 전체를 일반화시

키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기혼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졸혼(卒婚)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졸혼(卒婚)을 한 기혼자들과의 비교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실제 졸혼(卒婚)을 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졸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하여 탐색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노출시켰다. 그리고 '졸혼(卒婚)'이 기혼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현재 인식되어 표현되고 있는지 기존의 경제적 교환이론과 페미니즘 적 사고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상담 센터에 내방하는 내담자들 중 '졸혼(卒婚)'을 원하는 내담자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삶에 대하여 상담내용에 대한 방향성, 개입방법과 더불어 현실직시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강유진 (2017). 성인남녀의 비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2), 241-256.
- 김기화, 양성은 (2016). 자녀가 경험한 부모 이혼과 부자가족으로의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1), 83-96.
- 김병수 (2017). 졸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인물과 사상, (229), 171-179.
- 김소진 (2009).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29(3), 1087-1105.
-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안호, 채종훈 (2006).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경제연구, 18, 43-67.
- 김완섭 (1995). 창녀론, 천마.
-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기러기 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07-133.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 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 37-63.
- 박정수, 정유경 (2017). 대형마트 식품관측방법에 대한 싱글소비자의 인식. 호텔경영학연구, 26(3), 85-99.
- 박혜경 (2008). 중산층 기혼여성의 경험 세계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성격과 가사노동 가치인식. 페미니즘 연구, 8(2), 159-196.
- 박 훈, 윤현경 (2017).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제문제. 서울법학, 25(1), 377-428.
- 배주희 (2015). 문화의 문 (文): 도시에서 사는 법; 스몰웨딩, 우리만의 결혼식을 꿈꾸다. 도시문제, 50(562), 70-71.
- 송민영 (2016). 기혼여성의 결혼행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80.
- 성미애, 최연실, 최새은, 이재림 (2017).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의 재조명. 한국가정관

- 리학회지, 35(1), 139-158.
-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 (2003). 이혼가족 및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1, 9-34.
- 송미강 (2016). 이혼가정의 '부모마돌림증후군'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3), 59-103.
- 신아름, 최셋별 (2014). 한국사회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13-214.
- 엄명용, 김효순 (2011). 미혼 남녀의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 간 관계 탐색 연구. *한국인구학*, 34(3), 179-209.
- 아사회 (2014). 강남 여성의 낭만적 사랑의 시대. *실천문학*, 338-348.
- 이재경, 김보화 (2015). 2, 30 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한국여성학*, 31(4), 41-85.
- 이영재 (2008). 21 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 *실천민속학연구*, (12), 5-42.
- 정의술 (2014). 가족규범과 기혼이반. *여/성이론*, (30), 120-132.
- 조성구 (2017). 이혼수업: 이혼법정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전략. *베가북스*.
- 조은희 (2009).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법학연구*, 12(2), 103-146.
- 최양숙 (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18(2), 37-65.
- Becker, G. S. (1981).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48(189), 1-15.
- Ferree, M. M. (1991).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marriages: Dimensions of vari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158-180.
- Hall, P. A. (1993).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75-296.
- Horney, M. J., & McElroy, M. B. (1988). The household allocation problem: empirical results from a bargaining model.
- Lundberg, S., & Pollak, R. A. (2015). The evolving role of marriage: 1950-2010. *The Future of Children*, 25(2), 29-50.
- Merriam, S. B.(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20-35.
- Patton, M. Q. (2002). Two decades of developments in qualitative inquiry: A personal, experiential perspective. *Qualitative social work*, 1(3), 261-283.
- van Mane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van Manen (1997). From meaning to metho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7(3), 345-369.
- 杉山由美子 (2014). 距離をおいたほうが長続きする!?" 卒婚" を選んだ妻たち, 10年後の現実は(特集 夫にも子どもにも縛られない, 私の老後). *婦人公論*, 99(16), 32-35.
- 1차원고접수 : 2017. 10. 24.  
심사통과접수 : 2017. 12. 16.  
최종원고접수 : 2017. 12. 21.

## Woman wanting “Graduating on Marriage Life” in Korea

Lee Seung Sook

Korean Catholic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Center

Cheong Moon Joo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iddle - aged women who visited the counseling center with having main issue, graduating the marriage life.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6 participants (4 main participants, 2 assistant participants)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do.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26 common units experienced by four participants in the main study, it was extracted to eight components and two key mean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of this study did not want divorce as well as did not want to live together. The second is that despite of wanting ‘freedom’, it does mean ‘liberty given by spouse’ not ‘freedom to acquire oneself’. The third, that’s why participant wanted ‘marriage graduating’ was ‘I can not get money from my husband if I get divorced’, ‘I can’t work anything, and ‘I have children’ Finally, all participants thought that it was actually ‘impossible’ to ‘graduating the marriage lif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hought and psychological essence of middle - aged women who want to ‘graduating on the marriage’ and to search for the background of that in society. This study also provided direction information to counselors who counseled middle-aged women wanting to ‘graduating on the marriage’ how the counselors approach to them.

*Key words* : Middle-aged, Marriage Graduating, Phenomenological studies